

# FAO규약 실행으로 오·남용에 적극 대처

‘CropLife International·기업’ 판매업자 및 농가대상 적극 계도  
라벨표시대로 농약사용, 식품·수돗물 오염 우려 전혀 없어

## 카. 농약의 남용 및 오용

### 【공통적 의견】

- 농약업계는 농약의 남용이나 오용 문제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 어류, 조류나 동물을 독살하는데 농약이 사용되는 일이 있다.
- 제조가 금지되었거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제품이 시장개발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서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제3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 【해명】

- 업계는 정부와 협력하여 FAO의 「농약의 유통 및 사용에 관한 국제행동규약」을 실행하기로 함에 따라 제품의 남용 및 오용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이 기준에 대한 정보는 별항 참조).
- 업계는 CropLife International(각국의 농약공업협회로 구성된 국제적 단체)을 통해

또는 각 기업이 솔선수범적으로 판매업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오용에 의한 사고방지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업계는 정부의 관련기관이나 국가 또는 민간병원의 독성정보센터와 협력하여 사고 또는 계획적인 농약중독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 동물이나 어류의 불법 또는 무차별한 포획을 위하여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유감이다. 정부의 관리기관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처벌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 공식적으로 사용금지된 제품을 다른 국가에 판매 및 사용토록 하는것에 대해, 업계의 지도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에 판매업자 시설에 대한 입회검사, 범죄자의 체포, 처벌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 업계의 지도자들은 개인 또는 CropLife International을 통해서 집단으로 FAO

「행동규약」의 규정이 적절히 지켜지고 실행되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업계의 발의로 제품정보 및 사용방법이 정확히, 법적으로 유효하게, 이해하기 쉽게 「라벨 개선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오용 사례가 감소한다고 생각된다.
- 업계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제휴하여 「농약의 유통 및 사용에 관한 국제행동규약」의 9조에 정보교환(PIC)에 관한 특별조항을 도입하였다. 실제로 농약에 의한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 안전성에 관계되는 이유로 자국에서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제한되고 있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업자는 자국의 정부를 통하여 PIC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상대수입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농약의 소위 덤핑 수출은 농약업계에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남기고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사용하기 부적당한 제품도 다른 나라에서는 지역적인 수요나 병해충, 기상조건 등의 이유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타. 금지 또는 불필요한 제품의 폐기처분**  
**【공통적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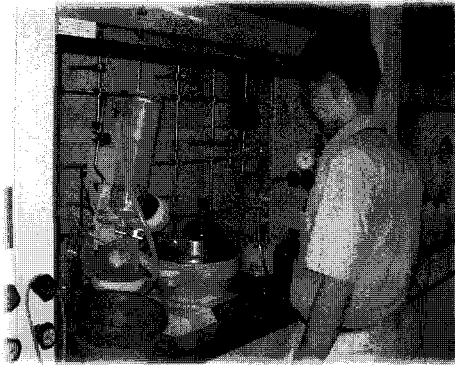
- 저장중의 경시변화나 소급입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제품은 기업이 책임을 가지고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 농가는 무책임한 방법으로 불필요한 재고품을 처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돗물의 안전성이나 환경전체에 더욱더 위협이 되고 있다.

**【해명】**

- 불필요한 제품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것은 기업만의 책임은 아니다. 이와 같은 제품은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소유도 있고 판매업자나 농가의 것도 있다.
- 업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책임을 나누는 것에 동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관련기관에 관련제품의 폐기방법을 자문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영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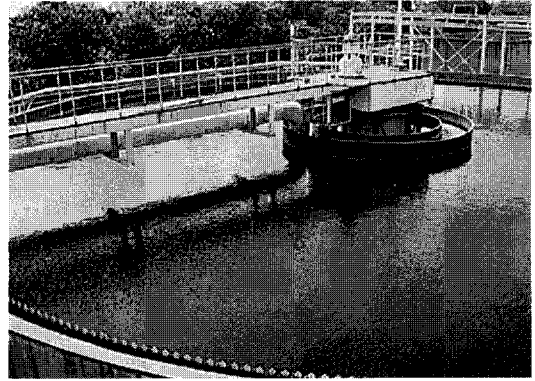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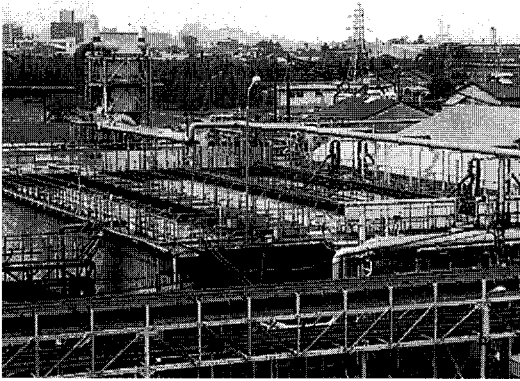


신규합성실험

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농업성 및 건강, 안전성위원회, 환경국이 일체가 되어 농약의 안전성에 관한 「作業基準」을 발표하였다. 이 기준 중에는 고농도 폐기물이나 희석폐기물 또는 포장의 처분에 대한 조항이 있다.

**파. 환경압력단체 - 업계비판자**

비정부조직(NGO)인 농약행동 네트워크, 지구의 친구, 그린피스 및 세계소비자기구(IOCU) 등 주요단체는 농약의 사용금지 또는 엄격한 사용제한을 요구하는 운동을 해왔다.



수질오염방지시설

## 【공통적 의견】

- 농약은 식품이나 수돗물, 환경전체를 오염시킨다.
- 농약은 많은 질환 특히, 암 관련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농약에 의한 인간의 중독사고는 용인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 특히 저개발국가에 많다.
- 병해충종합방제(IPM)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유기농법만으로도 세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농산물 및 섬유의 공급이 가능하다.

## 【해명】

- 제조회사가 작성한 라벨표시에 따라서 농약을 사용한 경우 식품이나 수돗물은 오염되지 않는다. 암이나 기타의 건강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농약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항 참조).
- 중독사고의 대부분은 계획적인 농약의 남용 즉, 사회문제에 따라 발생하는 자살의 결과로 발생되고 있다. 또한, 비교적 일부이긴 하지만 어떤 우발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고 있다. 농약업계에서는 사고에 의한 중독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진료 및 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중독정보센터와 협력하고 있다.

- 업계는 병해충종합방제(IPM)나 유기농법의 개발을 지지하거나 장려하고 있지만 세계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수량·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농약이 필요하다(종합적 방제 항 및 유기농법 항 참조).

## 『참고』

공개적인 집회 또는 사적인 장소에서 NGO에 대응할 경우에는 감정적인 의견으로 말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 또는 증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업계의 비판자에 따라 제기된 문제는 명쾌하고 적절한 논리로 대응한다.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인류의 번영을 지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농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반인에게 이해시킨다. 그것을 추진하고 그 다음 농약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일반인의 오해를 풀도록 한다.

## 4. 농약에 관한 기타 정보

### 가. 천연물 독소(천연농약)

합성화학물은 인체에 쌓여서 좋지 않고 천연화학물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일반적인 오해가 있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에 의하면 모든 천연화학물은 좋다고만 생각될 우려가 있다.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인체에 쌓이고 또한 동물에도 더 유해하다.

식품은 인류가 우연히 만난 것 중 화학적으로 가장 복잡한 물질의 일종이다. 식용식물 중에는 50만종이 넘는 천연화학물이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중 많은 것은 인체에 유독하고 먹으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미 캘리포니아대학 생물화학부 에임즈(Ames)박사에 의하면, 보통 식품에는 인간이 제조한 농약이나 독소의 1만배(중량 당)의 천연독소가 함유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99.99%(중량 당)의 천연농약을 포함한 식품을 섭취하고 있다. 그중에 합성농약은 0.01%만이 포함되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식물 중에는 그 중량비로 5%에 상당하는 천연농약이 포함되어 있고 그 대부분은 변이원성과 발암성 양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식물은 병해충의 공격에 따라 독소 생성기가 활성화 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다. 예를 들면 감자는 솔라닌을 생성하여 곤충의 공격을 피하고 있다. 이 독소는 함유량이 증가하면 인체에도 유해하다.

또 다른 예로서는 사상균병을 방지하지 않으면 맥류에서 생성하는 마이코톡신이 있다.

이 독소는 작물에 살포한 합성살균제의 잔류량에 비하여 건강에 대한 위해가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

인간의 몸은 실제적으로도 실험적으로도 천연의 화학물과 합성화학물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작용은 기원(起源)에 의하여 구별이 되지 않는다.

어떤 화학물(천연 또는 합성)의 독성작용의 발현은 용량에 직접 좌우된다. 그 때문에 독소는 모두 그렇지 않을 때까지 어떤 조건하에서는 유해하다.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광범위한 식품 중에는 발암성 물질이 있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천연화학물과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물질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 버섯 - 하이드라진(Hydrazines)
- 낙화생 - 아플라톡신(Aflatoxin)
- 후추 - 피페린(Piperine)
- 두류 - 사포닌(Saponins)
- 감자 - 솔라닌(Solanine)
- 커피 - 카페인(Caffeine)
- 맥류 - 마이코톡신(Mycotoxine)
- 겨자 - 아릴이소치오시아네이트

(Allylisothiocyanate)

분명히 인체에 대한 독작용은 독성이 발현하는 용량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건강에 대한 위험은 특정식품의 과잉섭취와 관계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섭취량에 의하여 독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커피 1백잔에는 성인에 대한 치사량의 카페인 함유되어 있다. 소금 50g을 섭취하면 어린이는 사망한다. **농약정보**